

■ S-533 ■

## Cancer risk in allergy: The fif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uh-Young Lee, Sujeong Kim, Woo-Jung Song, Hye-Ryun Kang, Heung-Woo Park,  
Sang-Heon Cho, Kyung-Up Min

**Title** Cancer risk in patients with asthma and atopic dermatitis: The fif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1  
**Background:** The associations between allergy and risk of malignancy have been suggested by many previous studies and it is still controversial.  
**Objective:** We evaluated the cancer risk in patients with asthma and atopic dermatitis in Korean adult general population based on the data from nationwide study.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analyzed data from a total of 6,026 adults, who participated in the fif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2011. The odds ratio (OR) of individual cancer (gastric, colorectal, lung, hepatic, breast, cervix, and thyroid cancer) was calculated in patients with asthma or atopic dermatitis. **Results:** Mean age was 50.96 (range: 19-97) years and males were 42.4%. Subjects with diagnosed asthma and atopic dermatitis were 4.8% and 4.7%, respectively. A higher risk of developing lung cancer was found in male patients with asthma (OR=21.00, confidence interval (CI): 2.932-150.403). Male asthmatics also showed higher risk for the development of colorectal cancer to a lesser degree (OR=9.08, CI: 1.968-18.750).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maintained even after adjusting for patients' smoking history and body mass index. In contrast, the risk of gastric, breast, cervix, and thyroid cancer did not show any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sthma or atopic dermatitis. **Conclusion:** Our results support an association between asthma and lung cancer.

■ S-534 ■

## C1 esterase inhibitor 결핍에 의한 혈관부종 1예

<sup>1</sup>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sup>2</sup>청주성모병원 내과

\*유영지<sup>1</sup>, 이상록<sup>2</sup>

**서론:** C1 esterase inhibitor 결핍증은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 두 가지로 나뉘며 선천성은 가족력이 있고 젊은층에서 호발하는 반면, 상기도, 복부, 생식기 등 신체의 중심축을 따라서 발생하며 혈관부종이 심하다. 반면 획득형은 림프구 증식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에서 C1 esterase inhibitor 결핍증이 발생하는 경우와 특이한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뉜다. 연자들은 최근 수년에 걸쳐서 부종이 발생한 환자에서 C1 esterase inhibitor 결핍에 의한 혈관부종의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33세 남자가 내원 12시간 전부터 시작된 양쪽 얼굴의 부종과 발진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상기 증세는 평소에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로 발생한다고 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팔과 다리에도 발생하였으며 가려움증은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학교 2학년 때 급성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20대부터 몇 년에 걸쳐서 오심, 구토, 복통으로 개인병원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내시경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들었으며, 내원 1년 전 감기약 복용 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과거력 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다. 부모님과 남동생에서 발진이나 두드러기의 증상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직업은 사무직이었고 음주는 한달에 맥주 1-2컵하였으며 흡연은 12pack years였다.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은 151/92 mmHg, 맥박 수 분당 90회, 호흡수 분당 16회, 체온은 36.6도이었다. 혈액검사상 백혈구 16680/ul(호중구 69.2%, 호산구 3%), 적혈구 18.5g/dl, 혈소판 330000/ul이었고 생화학검사, 심전도 흉부방사선 소견은 정상이었다. 다음 날 외래에서 시행한 MAST검사서 집먼지진드기(Df, class 2.1), alternaria (class 2.1), cladosporium (class 2.2)에 양성반응을 보였고, C4 0.6 mg/dl 이하(정상범위: 10-40 mg/dl), C1 esterase inhibitor 4.32 mg/dl (정상범위: 19.5-34.5)로 감소되어 있었고 C1q는 12.8 mg/dl (정상범위: 11.8-23.8 mg/dl), Anti-nuclear antibody, erythropoietin은 각각 정상이었다. C1 esterase inhibitor deficiency에 의한 혈관성 부종으로 생각하고 danazol 200 mg을 경구로 투약을 시작하였으며 1년 후 추적 검사상 C4는 10 mg/dl, C1 esterase inhibitor는 5.38 mg/dl, 2년 후 추적검사에는 C4는 9 mg/dl, C1 esterase inhibitor는 7.07 mg/dl로 약간의 상승을 보였고 이전에 보였던 발진이나 혈관부종의 증상은 없으며 현재 danazol 50 mg을 이틀에 한 번씩 복용하면서 외래 추적중이다.